

## 가자미도리노야카타 (풍향계의 집)

가자미도리노야카타(풍향계의 집, 옛 토마스 저택으로 알려진 곳)는 고베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이름의 유래이기도 한 풍향계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진칸초의 심볼입니다. 이 우아하고 위풍당당한 건축물은 1909년경 독일인 무역상 고트프리트 토마스를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목조 건축물이지만 외벽을 벽돌로 쌓고 반지하 부분을 화강암으로 장식하여 고베 이진칸 건물들 중에서도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20세기 초 십여년 동안 일본, 중국, 한국에서 많은 중요 공공 건축물과 개인 건축물을 만들어 온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드라란테(1872~1914)가 설계하였습니다.

풍향계의 집 내부는 위엄이 있으면서 장난기가 느껴지는 세련된 감성을 나타냅니다. 이 건축물은 두꺼운 기둥과 진한 색의 목공 등 독일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황동 문고리, 조명 기구, 수납장의 경첩과 금속 장식은 유겐토슈틸(독일 아르누보) 운동의 특징적인 장식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집은 정밀한 목재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격자 무늬 문에는 토마스의 출신 지역인 라인강의 코블렌츠를 가리키는 'Rhenania'를 라틴어 이름으로 적은 독일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집 그 자체는 반지하의 벽으로 형성된 석조 기초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벽돌과 함께 일부 외벽은 장식적인 디테일을 살린 페인트칠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회반죽을 바른 목재를 건물의 지붕과 벽 골조로 사용한 하프 팀버링 양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앞쪽의 모서리에 인상적인 3층 탑의 꼭대기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페인트칠이 된 철제 풍향계의 닭 장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모임지붕(hipped roof)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슬레이트로 덮여 있습니다.

인상적인 화강암 포치는 현관과 연결되며, 거기에서부터 높은 천장의 중앙 홀과 큰 목조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넓은 거실과 다이닝룸은 활짝 열리는 목재 슬라이딩 도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1층에 개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거실 한쪽에는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는 손잡이가 달린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이닝룸에는 유겐트슈틸의 장식적인 청동 경첩을 단 맞춤 목재 사이드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보드, 목재 외벽 패널, 문틀은 모두 코블렌츠의 슈톨첸펠스성이 떠오르는 성벽풍 장식으로 윗부분을 장식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팔각형 퇴창이 있는 서재는 입구 포치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통해 주인은 누가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바닥도 올라와 있고 유겐토슈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페인트칠이 된 패널 손잡이가 있습니다. 1층에는 또한 우아한 응접실과 넓은 베란다도 있습니다.

2층은 가족만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장식은 1층에 비해 화려하지 않습니다. 넓은 메인 침실과 어린이방, 게스트룸, 아침 식사를 위한 작은 방, 유리창이 있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방들은 모두 2층 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홀은 원래 당구를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고 당구를 위해 설치되었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타입의 조명기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층에는 지붕 뒤쪽

방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전망실이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당시, 토마스씨 가족은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고페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택은 매각되어 후에 연구소 및 고페중화동문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1978년 1월 풍향계의 집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고페시가 저택을 매입하였습니다.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 복구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내진보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